

불화 속 문양 생활용품에 접목

나주 심향사 '불화강좌' 인기

불화가 박정자씨 직접지도 매주 일요일 무료로 진행

불교문양이 생활 속에 살아나고 있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장은 만다라, 철보, 연꽃, 당초문 등의 불교문양을 티셔츠, 다포, 식탁보, 기와 등 생활용품에 활용하는 불화 강좌를 열고 있다.

지난달부터 백설당에서 매주 일요일 진행되고 있는 불화 강좌는 회를 거듭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이 늘어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강의는 나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불화가 박정자(종오무형문화재 제46호 단청장후보) 씨가 직접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화는 시왕초를 비롯해 등갓기 3000장을 해야 필적이 불기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붓 잡을 힘만 있다면 유지원에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배워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박정자 씨의 설명이다.

박씨는 심향사 불화강좌에서 이를 실증해 보이고 있다. 누구나 시왕초, 등갓기 강의를 3~4번 받고나면 광복에 밑그림을 그



나주 심향사 '불화강좌'는 불교문양을 생활용품에 활용하려는 불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릴 수 있고, 눈썰미 있는 수강생은 채색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실습에 앞서 '불화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 강의는 불화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레서 불교미술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심향사 불화강좌는 수강생들에게 또 하나의 수행으로 다가간다.

평소 급한 성격을 갖던 회사원 조성문(52)씨는 시왕초, 등갓기에 열중하면서 한결 느긋한 자신을 발견했다.

글·사진/나주=이준엽 기자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덕림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광주 덕림사 지장·시왕상 지역문화재 지정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 명부전 지장보살상이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7월 19일 문화재위원회 개최하고 덕림사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및 권속 26구를 시 유형문화재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불상 조성연대와 화주 및 조각승이 밝혀졌고, 지장보살이 독립된 조각에 모셔지는 명부신앙이 유

행하던 17세기 자료란 점에서 한국불교미술사 및 불교신앙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덕림사 지장보살상과 불구일체는 1680년 화순 영봉사에서 색닌(色難) 스님과 제자들에게 의해 조성됐으며 조선후기 사찰이 폐사되어 화순 유마사와 보성 대원사를 거쳐 1945년 광주 덕림사로 옮겨져 봉안됐다. 이준엽 기자

구품연지·구화루 복원 완료 제주 법화사 30일 연꽃축제

천년전 탐라불교와 해상 주도했던 법화사 구품연지가 복원됐다.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구품연지와 구화루를 복원하고 7월 30일 제1회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해상왕 장보고 대사 추모 대제재를 시작으로 화순 영봉사에서 색닌(色難) 스님과 제자들에게 결친 법화사지 발굴로 구품연지에 소망연등을 띄우고 야외에서 '달마야 놀자' 영화를 상영한다.

구품연지와 구화루에서는 연차, 연약약 밥 등 '연'과 관련된 음식과 사찰 전통음식 체험장이 개설된다. 또한 저녁에는 구품연지에 소망연등을 띄우고 야외에서 '달마야 놀자' 영화를 상영한다.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은 "1982년부터 여덟차례에 걸친 법화사지 발굴로 구품연지와 구화루 등 옛 당우를 복원했다"며 "연꽃 축제를 통해 법화사의 역사를 되새기고 지역민과 하나되는 문화전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지장보살 삼존불 점안 영동 반야사

영동 반야사주지 성제는 7월 17일 '지장보살 삼존불 점안 및 우룡 큰스님 초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반야사 주지 성제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반야사는 승방 29동 법당 9동의 대가람이었다"며 "복원이 완료된 대웅전과 지장전, 문수전을 중심으로 가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학생선원 조실 우룡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말과 글은 부처가 왜 극락세계에 가 있지만 불자들은 실천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며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당부했다.

유철주 기자

장안산서 산상기도 봉행 장수 죽림정사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7월 19일 장수 장안산에서 '동원완구 조사 탄생 110주년 기념 산상기도'를 봉행했다.

백운성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산상기도에서 참석자들은 일제강점기를 전도하며 국민통합과 평화를 발원했다.

죽림정사 총무 무언 스님은 "용성 스님과 스님의 수제자 동원 스님을 추모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기도를 진행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기도에서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의상조사 <일승발원문> 200권을 참석자들에게 보시하기도 했다. 유철주 기자

원주 법천사지 사적 지정 예고

원주 법천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7월 12일 법천사지가 2001년~2004년 진행된 4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건물지 19동을 비롯 금동불입상, 연화대석, 각종 자기류 등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돼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사천왕문 복원 추진 광주 증심사

광주 증심사주지 진화는 동구청과 함께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앞으로 2년 동안 사천왕문을 복원한다.

증심사 사천왕문은 1609년에 세워진 정문 누각 '취백루(翠柏樓)' 1층에 사천왕 4기를 두고 있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화재로 소실됐고, 이후 취백루는 1998년 복원돼 현재 법당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천왕문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용인 용덕사

포교·수행 기반시설 잘 갖춰



용덕사는 지난 3월 대웅전을 완공하고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용덕사는 불교회관과 시민선방, 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종합도량으로 거듭나게 된다.

신라 문성왕 때 영거사사가 창건하고 신라말 도선국사가 증창한 전통사찰인 용인 용덕사. 불과 5년 전만 해도 용덕사는 전통사찰이라는 명맥만 유지해왔을 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저 그런 사찰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효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용덕사는 바뀌기 시작했다. 사찰 진입로가 새로 놓여졌고, 대웅전, 일주문, 주차장, 화장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격을 갖췄다. 그리고 올 가을에는 지장전을 완공, 신라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게 된다.

올 10월 완공, 복지에도 뛰어든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이 복지시설은 20명 내외의 여성 재소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성 재소자들이 불교에 귀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용인 시내에 포교당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용덕사까지 와야 하는 지역 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 이곳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일련의 계획에 담긴 뜻은 바로 불교의 사회화다. 사실 용덕사는 불사

사찰체험 위한 회관 건립 등 분주

재소자 자녀 양육 시설 10월 완공

하지만 용덕사가 꾸꾸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사격을 갖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흐름과 불자들, 지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도량이다. 그리고 지금 용덕사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찰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회관 건립, 전통음식의 4층 규모로 지어질 회관은 완공 직후부터 템플스테이와 주말 사찰체험 프로그램의 수련시설로 사용된다. 시민선방 건립도 추진된다. 내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인 시민선방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공간 외에 스님 전을 선방까지 마련,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여성 재소자들의 자녀양육시설을

를 진행해오는 가운데에서도 신원단체인 복지회를 구성해 결식아동과 독거 어르신 등 불우한 지역민과 북한동포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사회를 볼 수 있어야만 불교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역불교 발전도 결국 지역발전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효 스님은 불교의 사회화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 그 신념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용덕사 종합도량화 계획, 멀지 않은 장래에 이뤄질 용덕사의 꿈은 바로 불교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031)332-0426

용인=한명우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6일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님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7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회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 · 보각스님(승가대학교) · 김호귀(동국대학교) · 정연스님(승가대학교)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 · 윤연수(문화재전문위원)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홍석스님(승가대학교)	· 권기중(동국대학교) · 김형준(근본불교원장) · 홍석스님(승가대학교)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사상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교원장) · 최종석(금강대학교) · 김상현(동국대학교) · 김성영(승가대학교)	· 최봉수(동국대학교)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 · 묘주스님(동국대학교)	· 주명철(동국대학교) · 정필조(동국대학교) · 차차석(동국대학교)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명규반·주건반·홍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경제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5년 7월 1일 ~ 2005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명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건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경제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 출석수강이 어려움

4. 입학 일시 불교학과 : 2005년 8월 6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불교한문학과·불교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경제문화학과: 2005년 9월 6, 7, 8일 개강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110-114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보련각 (조계사역) 02) 733-0333 · 부산: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예전 수보리 성당 064) 743-4184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동산불교대학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현)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영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신광수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현 禮獻

품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에서는 연구논문 등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현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만을 생산합니다.

* 산성배양이 함유되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의 특이한 향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현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어가 사별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정디안을 드립니다.

오직 900배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토종오가피 예현은 1달에 오직 9002만 생산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 신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며 재배합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현을 구입하신다면, 수신토종오가피 예현에는 복제품을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예현 001번부터 90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인정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현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